

1_사진에 대하여

WEBVTT

00:00:51.950 --> 00:00:53.466

안녕하세요.
인디비주얼 포토그래픽

00:00:53.491 --> 00:00:57.706

조재현 실장입니다.
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

00:00:57.900 --> 00:01:01.017

사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들을
하게 될 텐데요.

00:01:01.632 --> 00:01:05.373

사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
굉장히 간단하고

00:01:05.431 --> 00:01:08.371

또 어떻게 생각하면,
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

00:01:08.371 --> 00:01:15.171

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
스마트폰으로 그냥 촬영하는 것 이외에

00:01:15.408 --> 00:01:18.711

좀 더 크레이티브하고
좀 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

00:01:18.711 --> 00:01:23.591

그런 사진들을 찍으시는 데
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

00:01:23.618 --> 00:01:26.091

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

00:01:26.118 --> 00:01:29.464

차근차근 기초부터 하나씩
얘기를 나누다 보면

00:01:29.705 --> 00:01:34.521

어느새 기초적인 지식을
베이스로, 자신만의 개성,

00:01:34.521 --> 00:01:39.111

크레이티브, 유니크한 부분들이
담겨있는 사진들을

00:01:39.111 --> 00:01:43.061

찍으실 수 있게 될 테니까요.
차근차근 하나씩 앞으로

00:01:43.061 --> 00:01:45.607

저와 함께 사진에 대해서
이런 저런 얘기를

00:01:45.882 --> 00:01:49.755

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

00:01:49.755 --> 00:01:51.593

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
나눠보려고 하는데요.

00:01:52.253 --> 00:01:58.209

사진의 기능, 사진의 기능을
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

1_사진에 대하여

00:01:58.236 --> 00:02:02.245
나눠봤어요.
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

00:02:02.310 --> 00:02:05.013
개개인별로 나름대로의
의미가 다 있겠지만

00:02:05.466 --> 00:02:09.438
그래도 크게 나눠보자면
첫 번째가 기억의

00:02:09.438 --> 00:02:12.503
확장의 기능이 있죠.
저처럼 기억력이 굉장히

00:02:12.503 --> 00:02:16.457
안 좋은 사람들은
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을

00:02:16.457 --> 00:02:20.201
사진을 찍어둠으로써
'아 이 물건이 여기에 있구나,

00:02:20.201 --> 00:02:23.691
아니면 '내 차가 어디에
주차되어 있구나'라는 것을

00:02:24.218 --> 00:02:28.198
기억력 대신에 저장을 해 주니까
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.

00:02:28.547 --> 00:02:34.775
한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
극장이든 쇼핑몰이든

00:02:34.859 --> 00:02:39.914
좀 큰 주차장을 가게 되면
우리는 항상 주차 기둥을

00:02:39.914 --> 00:02:42.817
사진을 찍게 되잖아요.
그런데 단순히

00:02:42.817 --> 00:02:47.831
주차 기둥 사진을 찍을 때
그냥 기둥만 찍어도 되지만

00:02:48.070 --> 00:02:52.723
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
모델이 됐든 뭐가 됐든

00:02:52.802 --> 00:02:55.278
조금 더 연출을 해서
찍는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.

00:02:55.550 --> 00:02:59.869
그러면 단순히 기억의
확장 용도의 사진에서

00:02:59.869 --> 00:03:03.033
조금 더 발전된
뭔가 나의 의도가 들어간

00:03:03.352 --> 00:03:05.825
크레이티브한 느낌의 사진을
찍을 수 있거든요.

1_사진에 대하여

00:03:05.825 --> 00:03:09.273
예를 들어서 만약에
아버님과 같이

00:03:09.273 --> 00:03:12.649
극장에 갔다.
그러면 아버님한테

00:03:12.649 --> 00:03:15.454
기둥 사진 찍을 건데
잠깐만 이쪽으로 와 달라고 하면

00:03:15.454 --> 00:03:20.220
분명히 역정을 내시겠죠.
그 역정을 내시는 모습을 찍으세요.

00:03:21.014 --> 00:03:24.892
그러면 평소에 그냥
무뚝뚝한 아버지의 얼굴이든

00:03:25.975 --> 00:03:29.641
그냥 하나, 둘, 셋 하면서
얼어있는 모습의 사진이든

00:03:29.679 --> 00:03:32.554
그런 사진보다 훨씬 더
재미있고, 시간이 흘러서

00:03:32.584 --> 00:03:35.186
나중에 보더라도
이때 나중에 아버님이랑

00:03:35.186 --> 00:03:38.111
극장에 갔었고
이때 사진을 찍자고 해서

00:03:38.111 --> 00:03:42.493
아버님이 역정을 냈었다는 게
더 훨씬 기억에 남고

00:03:42.493 --> 00:03:45.269
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
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

00:03:45.618 --> 00:03:49.577
일상생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
찍는 사진들에 조금씩만

00:03:49.577 --> 00:03:53.005
의미를 부여해서
사진을 찍으시다 보면

00:03:53.380 --> 00:03:57.077
사진 실력도 훨씬 금방
향상되게 되실 거고

00:03:57.681 --> 00:04:02.079
또 단순한 기억의 확장을 넘어서
추억이 담긴 사진이 될 수도 있으니까

00:04:02.314 --> 00:04:06.984
항상 그런 촬영을 하실 때도
뭔가 더 의미 있는 사진을

00:04:07.009 --> 00:04:09.061
한번 찍어보려고
고민을 해 보시는 게

1_사진에 대하여

00:04:09.086 --> 00:04:12.421
좋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사진의 기능에서

00:04:12.421 --> 00:04:16.838
제가 말씀드리고 싶은
두 번째는 추억이죠.

00:04:16.838 --> 00:04:22.744
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
될 텐데, 어디 멋진 장소에

00:04:22.769 --> 00:04:26.610
간다든지, 멋진 장소가 아니어도
의미 있는 지인과 함께

00:04:26.610 --> 00:04:30.910
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했을 때
모든 분들이 다 사진을 찍죠.

00:04:31.528 --> 00:04:34.180
그 즐거웠던 추억,
아름다운 추억을

00:04:34.205 --> 00:04:39.529
오래 남기기 위해서,
근데 그런 사진을 찍을 때도

00:04:40.100 --> 00:04:44.495
단순히 그냥 멋진 장소 앞에서
하나, 둘, 셋하고 찍지 마시고

00:04:45.286 --> 00:04:49.776
뭔가 여기서 새로운 연출을
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시는 거예요.

00:04:50.082 --> 00:04:54.273
예를 들어서 매일
정면만 보고 찍던 사진을

00:04:54.298 --> 00:04:56.907
벗어나서 삼각대를
하나 가지고 가서서

00:04:58.387 --> 00:05:02.740
두 분 다 풍경 쪽을 바라보고
카메라는 두 분의 등 쪽을

00:05:02.740 --> 00:05:07.567
찍는다든지 아니면
옆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

00:05:07.567 --> 00:05:10.240
조금 아래에서 다리만 찍어도
상관없고요.

00:05:10.265 --> 00:05:14.800
그런 식으로 그런 추억을 담은
사진에서도 지금까지와는

00:05:14.800 --> 00:05:18.554
조금 다르게 다양한 시선으로
다양한 생각을 가지고

00:05:18.857 --> 00:05:23.382
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보시다 보면
남들과는 조금 다른

1_사진에 대하여

00:05:23.966 --> 00:05:27.527
나만의 개성이 담긴
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

00:05:28.038 --> 00:05:33.313
그런 실력을 가지게 되실 테니까
기억이든 추억이든

00:05:33.338 --> 00:05:38.144
항상 여러 가지 방향으로
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후에

00:05:38.144 --> 00:05:43.188
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
그다음에 세 번째 기능이라면

00:05:44.276 --> 00:05:47.627
제가 정리한 것은
아이덴티티의 표현이라고

00:05:47.627 --> 00:05:51.996
정리를 해 봤는데
제가 사진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

00:05:53.244 --> 00:05:58.724
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
단순히 멋진 사진을 찍고,

00:05:59.826 --> 00:06:06.186
멋진 곳을 가고
이런 의미의 사진을 벗어나서

00:06:06.707 --> 00:06:09.615
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
사진을 이용하는 거죠.

00:06:09.887 --> 00:06:12.631
내가 어떤 사람이고
나는 뭘 좋아하고

00:06:13.160 --> 00:06:18.572
그래서 나의 성격은 어떨고
그런 게 다 사진에서 드러나거든요.

00:06:18.599 --> 00:06:22.396
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

00:06:22.396 --> 00:06:23.619
컬러풀한 것을 좋아한다면

00:06:23.619 --> 00:06:26.086
당연히 사진에도
밝은 느낌의 사진,

00:06:26.615 --> 00:06:30.275
색채도 다양한, 컬러풀한
사진들을 담을 것이고

00:06:31.536 --> 00:06:37.573
아니면 내가 나는 조금 차분하고
살짝 센티멘탈한

00:06:37.573 --> 00:06:40.605
느낌이 있는 사람이라면
그러면 그의 분위기가 있는

00:06:40.605 --> 00:06:45.513

1_사진에 대하여

사진을 찍게 될 것이고
되게 느낌 있는 사진들을 찍게 되겠죠.

00:06:46.162 --> 00:06:51.417
이런 것처럼 사진은 그냥
단순히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보면

00:06:51.595 --> 00:06:53.954
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
어떠한 성격의 사람인지가

00:06:53.954 --> 00:06:58.643
다 드러나거든요.
그러한 것처럼 사진을 통해서

00:06:58.709 --> 00:07:01.002
점점 나를 알아간다는
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

00:07:01.378 --> 00:07:05.296
나도 몰랐던 나 자신을
내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

00:07:05.296 --> 00:07:08.743
'아 나는 이런 성향의
사람이구나', '이런 스타일을

00:07:08.743 --> 00:07:11.084
좋아하는 사람이구나' 라는 걸
파악할 수 있거든요.

00:07:12.266 --> 00:07:18.427
예를 들어서 저는 평소에는
굉장히 밝은 분위기를 좋아하고

00:07:18.687 --> 00:07:22.404
공감도 되게 잘하고
항상 즐거운 분위기를

00:07:22.404 --> 00:07:27.537
좋아하지만 제 사진을
기획 되시면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

00:07:27.537 --> 00:07:33.557
제 사진들은 약간 어둡고
차분하고 뭔가 정적인 느낌의

00:07:33.557 --> 00:07:37.304
사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
그런 것처럼 나도 몰랐던

00:07:37.304 --> 00:07:41.919
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
사진이 어느 정도의

00:07:41.919 --> 00:07:44.078
역할을 할 수 있다고
말씀드리고 싶고요.

00:07:45.942 --> 00:07:50.839
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
기억의 확장, 추억, 아이덴티티,

00:07:50.839 --> 00:07:53.440
나만의 아이덴티티를
표현하는 수단으로서

00:07:54.013 --> 00:07:57.790

1_사진에 대하여

이 사진이 의미를 갖게 되는데
물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

00:07:57.790 --> 00:08:02.534
개개인별로 다 다양하게
자기만의 의미로

00:08:02.559 --> 00:08:05.148
사진 생활을 하시겠지만
제가 정리했던

00:08:05.148 --> 00:08:07.871
이 세 가지 말고도
항상 사진 생활을 하시면서

00:08:07.871 --> 00:08:12.914
'아 나는 이런 사진을
찍고 싶구나.', '이런 사진을

00:08:12.914 --> 00:08:15.516
찍어야겠다.', '앞으로
이런 사진을 찍어야겠다.',

00:08:16.044 --> 00:08:19.312
'이런 사진을 좋아한다.'
이런 자신의 성향을

00:08:19.504 --> 00:08:23.039
파악하는 과정을
한 번 정도는 가져보시면

00:08:23.795 --> 00:08:28.619
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
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

00:08:28.619 --> 00:08:32.199
피사체를 정확하게
파악을 할 수 있고

00:08:32.199 --> 00:08:35.022
그렇게 파악이 되면
그 분야에 대해서

00:08:35.022 --> 00:08:39.306
자신의 사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
더 효율적으로 빨리

00:08:39.851 --> 00:08:46.092
시간을 단축하시는데
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

00:08:46.119 --> 00:08:47.957
정리를 하자면

00:08:47.984 --> 00:08:50.411
메모를 한번 해 보는 게
좋을 것 같아요.

00:08:50.411 --> 00:08:53.861
지금까지 내가 찍은 사진들이
어떠한 스타일인지

00:08:54.434 --> 00:08:56.947
그리고 앞으로 내가
찍고 싶은 사진이 뭔지

00:08:56.947 --> 00:09:01.119
한 번 정리를 하셔서

1_사진에 대하여

그 분야별로 사진은 너무나

00:09:01.631 --> 00:09:05.712
다양한 환경, 시간대에 따라서
너무나 다르기 때문에

00:09:06.029 --> 00:09:08.654
그런 부분들을 한 번
정리를 하셔가지고

00:09:08.752 --> 00:09:14.024
그쪽 부분에 대해서
조금 더, 공부라고 하긴 그렇고

00:09:14.342 --> 00:09:17.246
정리를 해 보신다면
그쪽 분야의 실력을

00:09:17.246 --> 00:09:20.562
향상시키는데 훨씬 더
시간적으로 단축도 되고

00:09:20.851 --> 00:09:24.287
효율도 높게 금방 실력이
향상되실 것 같으니까요.

00:09:24.516 --> 00:09:26.990
한 번 그렇게 정리해 보는
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

00:09:27.029 --> 00:09:30.761
좋을 것 같습니다.
오늘은 첫째 시간이라

00:09:30.761 --> 00:09:35.728
사진이 주는 의미,
사진의 기능, 사진이 나에게 주는

00:09:35.728 --> 00:09:39.068
의미에 대해서 한 번
얘기를 해 봤는데요.

00:09:39.376 --> 00:09:41.352
어떻게 보면 되게
간단할 수도 있지만

00:09:41.382 --> 00:09:45.445
이런 과정을 한 번 거침으로써
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

00:09:45.915 --> 00:09:49.065
아니면 전문적인 촬영기술을
향상시키는데 분명히

00:09:49.090 --> 00:09:51.192
도움이 되실 테니까
이런 과정을 한번

00:09:51.192 --> 00:09:54.255
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.
그리고 마지막으로

00:09:55.193 --> 00:09:58.915
제 주변 사람들이
가장 많이 하는

00:09:58.915 --> 00:10:03.347
질문 중의 하나가

1_사진에 대하여

‘어떻게 하면 사진을

00:10:03.347 --> 00:10:07.594
잘 찍을 수 있을까요, 빨리?
그때마다 제가 망설임 없이

00:10:07.594 --> 00:10:10.957
답변을 드리는 대답이 있는데
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

00:10:11.018 --> 00:10:18.279
첫 번째, 사진을 많이 찍어라.
어려우면 많이 찍으세요.

00:10:18.306 --> 00:10:23.455
두 번째, 그리고 또
사진을 많이 찍어라.

00:10:24.152 --> 00:10:29.482
아니면 많이 찍으세요.
세 번째 사진을 많이 많이

00:10:29.482 --> 00:10:32.355
많이 찍었으면
세 번째는 마지막으로

00:10:32.355 --> 00:10:35.683
사진을 또 많이 찍어라.
찍으세요.

00:10:35.710 --> 00:10:40.344
무슨 말이나면, 개개인별의
성향이 너무나 다르고

00:10:40.431 --> 00:10:44.814
사진을 찍는 환경, 시간
혹은 그날에 비가 오는지

00:10:44.814 --> 00:10:48.283
눈이 오는지 너무나도 다양한
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

00:10:48.528 --> 00:10:51.206
어떻게 해야지 사진을
잘 찍을 수 있다고

00:10:52.170 --> 00:10:56.126
정확한 방법이 없어요.
무조건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

00:10:56.126 --> 00:10:58.821
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험을
해 보셔야지

00:10:59.148 --> 00:11:01.250
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
알 수 있게 되고

00:11:01.515 --> 00:11:04.118
이런 환경에서는
이렇게 찍는 게

00:11:05.008 --> 00:11:09.163
남들도 보기 좋을 수 있고
내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는

00:11:09.163 --> 00:11:10.986
그런 데이터베이스가

1_사진에 대하여

쌓이게 되잖아요.

00:11:11.186 --> 00:11:13.756
무조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
많이 쌓으셔야지

00:11:14.643 --> 00:11:20.390
어떤 환경에서든
어떤 사람이든 시간 낭비 없이

00:11:20.415 --> 00:11:24.153
효율적으로 빨리 자기가 원하는
퀄리티의 사진을 뺄 수 있는

00:11:24.153 --> 00:11:26.662
방법이라는 것을
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

00:11:27.111 --> 00:11:30.747
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
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00:11:31.240 --> 00:11:36.909
그러면 다음 시간부터
본격적으로 장비부터 시작해서

00:11:37.163 --> 00:11:41.554
쭉쭉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
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00:11:41.871 --> 00:11:45.298
지금까지 인디비주얼
포토그래픽 조재현 실장이었습니다.

00:11:45.298 --> 00:11:46.217
감사합니다.